

東亞冷戰・國家恐怖主義學術研討會

흥기하는 아시아와 확대된 미일 안보 조약

王春生

主催：「東亞冷戰・國家恐怖主義」學術研討會執行委員會

主管：台灣事務局・台灣地區政治受難人互助會

協贊：日本事務局、韓國事務局

後援：中國統一聯盟

台灣社會科學研究會

夏潮聯合會

勞動黨

時間：1997年2月22日～23日

場所：劍潭海外青年活動中心（台北市中山北路四段十六號）

흥기하는 아시아와 확대된 미일 안보 조약

王春生

王春生

본문은 역사적 시각으로 미국과 중국을 안에 포함하는 아시아 국가와 인민 세력의 경쟁으로부터 1996년 4월 체결된 확대된 미일 안보 조약의 몇 가지 책략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다. 동시에 일본 인민, 전구화인의 미일 안보 조약 制衡작용에 대한 각성을 분석한다.

1. 21세기는 아시아가 일어나는 세기

李光耀선생은 최근 "21세기의 아시아는 세계사상의 지위를 회복할 것이다. 과거 30년의 발전은 동아시아 인민 -- 중국인을 안에 포함하는 -- 에게 미래에 대해 낙관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고 말하였다. 같은 논문은 눈앞의 경제 성장률을 추산한 것을 근거로 25년 후인 2020년에 이르면 동아시아의 국내 생산 총액(GDP)은 구매력으로 평가하여 계산하면 전세계 국내 생산치의 40%, 북미는 18%, 유럽 연합은 14%를 점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중국은 동아시아의 대국이기에 금후에 증대하고 예견할 수 없는 재난을 당하여 중국이 재차 혼란, 분열 혹은 균벌 할거의 국면이 발생하지만 않는다면, 2010년에 중국의 총GDP는 미국을 따라잡고 심지어는 미국을 초과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미국으로 하여금 상당히 근심하게 하는 것이다. 미국의 근심거리는 중국이 미국에 주어진 두드러진 지위(패권)를 놓고 다툼을 할 때 그들은 어떤 세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광요는 또한 경제 지위의 변화는 관점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하였다. 1가지는 더욱 자신을 가진 중국의 출현은 불가피한 사실이라는 것이다.

1996년 3월 중공은 대만 해협에서 미사일 연습을 진행하였다. 4월 클린턴 대통령과 橋本龍太郎은 종종히 확대된 미일 안보 조약을 체결하였다. 6월 미국 양당은 공동으로 중국에 최혜국 대우를 할 것을 지지하였다. 7월 일본 우파와 군국주의가 대두하여 조어 사건을 만들어 전구화인이 공동 보조를 맞추어 조어태 보호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런 것들은 모두 이러한 역사 조건하에서 연출된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중국과 미국, 중국과 일본 사이의 힘의 경쟁이다.

2. 미국은 결코 아시아에서 물러나지 않는다

중국은 몇 번이나 참고, 양보한 뒤 마침내 1996년 3월 대만 문제에 비장의 카드를 꺼내었다. 미사일 시험 사격은 중공이 高雄을 봉쇄하고 基隆을 봉쇄할 역량을 가지고 있어 대만 해협을 봉쇄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급박한 정책은 야심을 가지고 있는 미국, 일본과 대만 독립 분자들에게 경고한 것이다. 중국은 대만을 회수할 결심과 능력이 있다! 이러한 비장의 카드를 한 번 내놓음으로써 미국은 정신을 차리고 현실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클린턴은 비록 표면상으로는 대대적으로 일을 벌여 항모 「니미츠호」와 「인디펜던스호」를 파견하여 태평양에 진입하여 대만 「보위」를 명분으로 재차 「포함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이봉의 경고 하에 「니미츠호」는 감히 대만 해협으로 항진하지 못하고 먼 거리에 정박하여 관망하고 있다. 비록 미국 국방부장관 페리는 "우리들은 결코 아시아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큰 소리로 떠들지만 사실상 이번 에 미국과 중국간의 대치 중에는 기회를 엿보면서 실제 행동에 옮기지 않고 있다. 이는 <<축약시보>>의 반중국분자가 급해서 발을 동동구르게 하여, 미국의 조야가 대란이라 하였다. 중국과 개진이 필요한지 중국을 억제할 수 있는지와 같은 진지한 문제는 즉시 미국인이 직면하도록 요구하였다.

3. 중국과 냉전을 하는 것은 값비싸고 매우 위험하다

Steven Erlanger 는 1996년 2월말에 <<축약시보>>에서 <중국식냉전예상 : 비싸고 위험하다> (Chinese Cold war Forecast: Costly, Dangerous, N.Y. Times 2/25/96) 라는 장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논문은 다시 중국과 냉전 혹은 열전을 할 수 없다고 역설하였다. 첫째로 미국은 냉전 시대의 과실을 순조롭게 받아들인 후 어쩔 수 없이 군비를 삭감하고 경제를 발전시켰으나 다시 한번 국방비용을 대량으로 증가시켜야 한다. 두 번째로 미국이 일단 중국에게 준 최혜국 대우를 중단하여야만 하며, 미중 양국의 고액 무역도 곧 중단될 것이다. 셋째로 중국과 냉전을 하는 것은 미국과 기타 아시아 국가로 하여금 심각한 불일치를 낳게 할 것이다. 일본은 미국과 중국간의 양자 중 택일을 하도록 강요받을 것이다. 미국은 싱가포르와 태국 심지어는 남한에서도 심각한 불일치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넷째로 중국은 유엔 안보리에서의 부결권을 사용하여 미국은 곳곳에서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다섯째로 중국은 핵무기 확산과 화학무기 상에서 미국을 방해할 수 있을 것이다.

클린턴의 막료들은 아래와 같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중국을 억제하는 데 최대의 난점은 미국이 이미 아시아에서 중국을 억제하는 정책을 집행하는데 도움을 줄 하나의 우방국도 없다는 것이다. 과거에도 일단 미국이 중국을 [억제]하려고 하면 미국은 곧 일본, 한국과 마찬가지로 심지어는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마찰이 일어났으며 오스트레일리아는 말할 필요도 없다. 소련을 억제하는 정책에서 미국은 도움을 주는 많은 동맹국이 있었다. 資深白宮막료는 “이것은 우리들이 매우 좋아하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중국과 진행하는 건설적, 전면적인 접촉이 너무 이른 것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우리들이 바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그것은 아직도 유일하고 비교적 실제적이며 합리적인 정책이다. 미국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논하지 않고 억제하는 것도 좋다 전면적인 대화도 좋다는 것은 모두 중국이 하나의 비교적 중요한 대국이 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으로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말하였다.

클린턴의 [모호한 정책]은 중국에서 비장의 카드를 꺼낸 후 곧바로 명료하게 되었다. 1996년 5월 국무장관 크리스토퍼는 첫 번째로 대중국 정책의 강연을 발표하여 중국과 전면 대화하고 더욱이 중국 고위층과 접촉할 것을 주장하였다. 6월 중국에 최혜국 대우를 지지할 것을 선포하고 아울러 대선 후 중국을 방문할 것을 선포하였다. 대만 문제에 대해 미국은 3개의 公報까지 되찾는다는 것을 원칙상으로 승낙하였다.

#### 4. 이보 전진을 위해 일본 후퇴한 확대된 미일 안보 조약

미국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구와 소련이 해체된 후 본래 홀로 세계의 패권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좋은 꿈은 흥기하는 아시아와 독립적으로 날로 강대해지는 중국에 의해 분쇄되었다. 미국의 정치 위원과 매체는 중국에 대해 한가지 정론이 있다. “그녀(중국)는 고립되는 것을 두려워 않는다” 냉전 시대 후기에 의식 형태, 인권 문제, 핵무기 확산 문제, 무역, 제해권, 환경문제 등을 불문하고 중국은 모두 거의 유일하게 미국과 침예하게 대립하였으며, 또 절대다수의 발전하는 국가가 지지하는 국가가 되었다. 미국이 가하는 각종 참견에 대해 중국은 감히 노신이 말한 [화가 나서 눈을 부라리며 냉대하는] 것과 같이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항하였다.

아시아에서 중국은 미국이 다시 옛날의 업적을 되찾고 대만이 중국을 분열시키는 방패가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미국은 아시아의 새롭게 일어나는 시장을 보면서 클린턴은 “미국도 하나의 태평양 국가다”라고 말하고 억지로 개입하면서 아시아에서 물러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일 안보 조약은 곧 이러한 역사적 조건의 산물이다. 1996년 4월 클린턴은 황급히 동경으로 날아와 교본용태랑과 확대된 미일 안보 조약을 체결하고 [21세기의 연맹] 이라는 제목으로 미일 선언을 발표하였다.

확대된 미일 안보 조약 결국 미국이 일본 군국주의 분자에게 중국을 억제(Contain)할 것을 종용하려 한 것이며, [아시아인으로 아시아를 제어한다]는 수법임이 분명하다.

미국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중국과 싸우는 것으로 곧 [중국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책속에 지적한 미국이 유사 이래 첫 번째로 승리할 수 없었던 전쟁은 동반자가 중국의 인민군대인 전쟁이라는 것과 같다. 한국전쟁과 월남 전쟁은 미국에게 두려움을 주었다. 근년에 와서 미국이 자화자찬한 걸프전

쟁에서의 승리는 사막 지대의 특수 지형에 의지하여 수준높은 과학기술 무기를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전쟁 방법은 절대로 중국 혹은 아시아 지역에 다시 사용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해방군을 두려워하며, 게다가 미국 국내에서는 해외 전장에 파병하는데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어 미국이 중국을 침략하려는 것은 아마도 쉽지 않을 것이다. 최근 200여 명의 미국 병사가 걸프전쟁중에 화학무기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발견으로 인해 다시 한 번 침략자의 創傷을 드러내었다. 이로 인해 확대된 미일 안보 조약을 기록하고 일본 군국주의의 야심을 차용하여 미국이 중국에 대응하는 하나의 [上策]을 만들었다.

미일 확대 안보 조약의 내용은 印鐵林의 보도에 의하면 두 가지가 있다.

갑 : 적용된 지리범위상에서 : 과거 안보 조약은 단지 일본이 외국의 공격을 받을 때에 응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으로 방어적인 성격이라 할 수 있다. 신 조약은 적용 범위를 [주변 국가]까지로 확대하였다. 도대체 몇 킬로미터 이내를 [주변 국가]라고 하는가? 당연히 무법적인 정의이다. 소위 [주변 국가]는 확인하게 미일의 이익에 관계 있는 동아시아 지역과 국가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것은 원래 [방어적]인 안보 조약이 [적극적인 참여]로 확대되어 공격적인 성격으로 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을 : 미일 합작의 구체적인 내용상에서 : 구 조약의 주요 규정은 일본이 미군의 수요에 대하여 [물결과 후방근무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신 조약의 규정은 일본이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채용한 행동에 동반자가 되고 또한 군사 기술상에서 미일이 정보를 교환한다. 이것도 간단하고 정태적인 후방 지원 관계가 전면 군사 행동의 합작 동맹으로 확대되고 아울러 신무기의 공동 연구 제작에 이르러서는 관계가 일반 군사 동맹을 넘어서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미일 확대 안보 조약은 미국이 적극적인 동아시아 전략 부서의 하나의 포석이다.

#### 5. 일본 인민은 미군 기지에 반대한다

류구(오키나와)거주민을 우두머리로 하는 일본 인민은 지난 일년 전부터 미군 기지에 반대를 하는 대시위가 매우 많았다. 1996년 9월 8일에 류구거주민은 10대1의 투표로서 류구에서의 미군 기지의 대량 감소를 요구하였다. 류구 정부는 주장관 Masahide Ota의 영도 하에 적극적으로 류구 공민을 동원하여 이러한 역사적인 투표에 참가하도록 하였는데, 이 투표 결과는 실제적으로 워싱턴과 동경 정부에 대해 하나의 경고가 되었다.

1995년 류구의 12살난 여학생이 3명의 미국 병사에게 납치되어 운간당했다. 이 범죄 사건은 류구 거주민을 크게 분노케 하였으며, 미군 기지를 반대하는 도화선이 되었다. 류구 거주민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가두시위를 하고 세명의 병사가 심판과 형을 선고받도록 요구하였다. 클린턴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을 수 없었다. 류구 거주민이 오랫동안 미군 기지와 미국 군인에 대한 원한이 마침내 폭발한 것이다.

류구가 비록 일본 토지의 백분의 일을 점한다 하여도 오히려 백분의 칠십오의 미군 기지의 소재지이고 47000미국 주일 군대의 반이상이 류구에 거주한다. Ota주장관은 올해 가을 교본용태랑과 면담하여 그에게 류구 인민의 미군 기지에 반대하는 투표 결과를 건네줄 것이지만 교본용태랑은 류구 거주민의 반대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며 계속 미군 기지가 류구에 남아 있기를 희망할 것이다.

사실상 교본도 미군 기지를 일본의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금년 10월 북해도의 작은 군사 지역인 Betsuraicho는 <<축약시보>>에 의하면 거주민이 가두시위를 하여 미군이 그 곳까지 와서 일본군의 사격장에서 사격 연습을 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이유는 거주민들이 류구 소녀가 강간당한 사건이 이 곳에서도 다시 일어날까봐 걱정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비록 일본 인민이 류구 거주민의 요구를 매우 동정한다 해도 그렇지만 그들도 절대로 미군이 일본 본토에 주둔하는 것을 환영하지 않을 것이다.

확대된 미일 안보 조약은 일본과 아시아 인민의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 6. 釣漁台 : 중국은 모욕 받을 수 있는 인민이 아니다

1996년 7월 이래의 제2차 조어태운동은 일본 군국주의 분자가 말해 온 것에 대해 단번에 정신을 차려 홍콩, 대만과 미국, 캐나다의 중국인이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 행위에 반대하였다. 마침내 1996년 10월 10일에 중국인이 조어태에 상륙하여 중국 국기를 꽂았다. 이것은 25년 동안 첫 번째로 일본이 조어태를 占用한 시효를 중단시키려는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일본 군국주의 분자는 스스로 확대된 미일 안보 조약을 후원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여 해보고 싶어 안달하였다. 일본 청년사 단원은 조어태에 올라 등대를 세우고 일본 국기를 세웠다. 일본 외무성은 망령스럽게 조어도는 일본 영토라고 공언하고 일본 보안청의 배들은 오랫동안 대만 어선을 몰아내고 대만 어민들에게 물을 뿌고 페인트를 뿌리고 욕설을 퍼부었다. 이러한 행위는 전구화인으로 하여금 각성과 단결을 하도록 촉진하였다. 홍콩에서 대북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까지 많은 중국인들이 가두시위를 하였으며, 일본 군국주의의 대두를 규탄하고 일본 정부가 등대와 국기를 제거할 것을 요구하였다. 대만 지도자가 일본과 어업권 문제에서 타협하고 주권 문제에서 양보한 것을 방기하게끔 하였다.

일본은 이처럼 張州臺灣이 방패막이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전구화인의 대단결을 야기하였으며, 중화 민족주의의 부흥은 홍콩 인민과 대만 인민이 하나의 수업을 하게 되었다! 이것은 일본 군국주의 분자가 생각지도 못한 결과이며 식민지 시대의 精英 이등휘 등의 사람도 공개적으로 감히 일본에게 추파를 던지지 못하였으며, 어업권 담판 시에 조어태는 중국 영토라고 재삼 강조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일본도 어업권을 다시 대만 어민에게 돌려주어야 하였다.

전구화인의 각성은 미일의 확대된 안보의 여의봉이다.

#### 6. 미국의 패권은 쇠퇴하여 봄이 간다

외교는 내정의 연속이며 미국의 외교정책은 미국 국내 각파의 역량의 요구와 정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보수파와 중간파의 투쟁이다. 미국의 외교는 옛 소련의 모습과 같이 근년에 와서 점차로 영향력이 감소되고 있다. 베를린 장벽 붕괴 후 미국의 패권적 국면이 덧없이 사라져 간다.

Lawrence Eagleburger 는 부시 때의 副國務卿으로 최근 <<Foreign Affairs>>주간에서 미국 정부가 외교 경비를 다시 삭감해서는 안된다는 요구를 역설하였다. 냉전 시대로 말미암아 더욱이 레이건 대통령 시대의 미국 국방 외교비용의 커다란 증가로 방대한 정부 적자를 조성하였다. 미국 인민은 강렬하게 적자를 낮추어 소비를 줄여서 수지를 맞출 것을 요구하였다. 이것은 제3당인사 Perrot 와 Kingrich [혁명]의 주요 정견이다.

Eagleburger 가 지적한 것에 따르면 미국은 1996년의 외교 지출은 1984년의 51%로서 1997년 클린턴 대통령 또다시 외교비용을 삭감하려고 한다. 동시에 상원 외교 위원회 주석 赫爾姆斯는 클린턴에게 USIA, AID 와 ARMS CONTROL 기구를 해산할 것을 요구하였다. 1996년 3월 국회는 겨우 타협 방안을 통과시켰는데, 클린턴에게 앞에 말한 3개중에 하나의 기구만을 해산할 것을 요구하고 두 개는 보류하였다. 미국 인도네시아 주재 대사관에서 중요한 대사관인데 경비 삭감으로 인하여 냉방장치를 없애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아열대의 국가에서는 공조하지 않고서는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데 다만 이것이 유일하게 삭감할 수 있는 항목이었다. Eagleburger 는 이 대사관이 경비 부족으로 인해 유효한 작업을 할 수 없음을 인정하였다.

이것은 후기 냉전 시대의 정상적인 현상으로 미국의 패권이 이미 쇠퇴하고 몰락하여 인위적인 의지로는 바꿀 수 없는 것이다.

#### 미국 정치 : 보수파와 중간파의 투쟁

레이건 대통령이 무대에 오르고나서부터 미국 정치 형세의 중요한 것은 보수파의 대두이며 공화당의 우파의 草根운동의 흥기와 좌파 및 자유주의파의 사상 혼란과 전군이 전멸한 것이다. 다만 1995년에 있었던 Louis Farrkan 의 100만 흑인 남자의 시위 행진과 1996년의 클린턴선거중의 라틴아메리카 출신 선거민이 이끈 켈기와 전국총공회의 선거에 史溫尼의 당선 및 클린턴 대통령 경선에 전면 개입

은 이러한 정치 형세를 바꾸는 시작이었다.

외교정책에서 주요한 것은 보수파가 정권을 잡고 반공적 신 고립주의자와 신 레이건주의자와 중간파의 윌슨 이상주의자와 늑은이들의 실제파를 포괄하였다는 것이다.

#### 1) Neo - Isolationists 와 Neo - Reganists

신 고립주의자들의 파는 Petrik Buchanan을 대표로 하는 반공적 고립주의자이다. 주요한 군중 기초는 보수파 기독교 초군 운동 인사이다. 그들은 미국이 국제 문제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며, 중심은 미국 내정 방면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미국이 유럽 연맹 각국에 군비 부담을 하게 하고 일본이 미일 안보의 비용을 균등하게 분담하여야 하며 아울러 국방, 외교 지출과 연합국의 활동과 비용을 급격하게 삭감할 것을 주장한다. 이유는 유럽과 일본은 다년간 미국이 혼자 군사비용을 부담하여 부유해졌으며 현재 미국은 자신의 경제와 자신의 국민을 돌아보아야 할 때라는 것이다. 이 파의 인사는 비록 항상 반공적 색채를 띠고 있으나 실질적 요구에서는 오히려 비교적 미국 국민의 이익에 부합한다.

신 레이건주의자는 분명한 대표 인사는 없다. 그들 중에는 레이건 대통령의 옛날 막료들이 그 안에 있다. 그들은 근년에 와서 미국 정부 예산 중 부단히 국방비 지출을 삭감하기 때문에 압력을 받았는데 주요 인물은 군대의 화기 공업과 군대 인사이다. 이 파의 사람은 중국을 전복하거나 억제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하나의 핵보호 우산을 만들 것을 요구한다. 미국은 당연히 군사적 우세로서 민주를 추진하고 다른 사람의 시장을 개방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전면적인 의식 형태의 투쟁과 국방비 지출의 대량 증가를 주장한다. 이 파의 인사는 역사 조류를 위반하고 다시 냉전 시대로 되돌아가는 침병이 되려고 한다.

#### 2) Wilsonian Idealists 와 Old Guard Realist

클린턴 대통령과 그의 막료들은 윌슨 대통령의 이상주의로 자처하며 자신을 민주 자유 이념의 수호자라고 표방한다. 그들은 지금 변함없이 베를린 장벽 붕괴후 미국의 광영을 그리워하며 그것이 전세계 민주 운동의 세 번째 물결이라고 인정한다. 그들은 고립주의를 비판하고 실제파도 비판하며 의식 형태에서의 투쟁과 미국 상품을 생취하기 위해 시장을 여는 것에는 특별히 적극성을 가진다. 중국에 대해 이러한 인사들은 도리어 6.4사건을 생각하고 있으며, 그것이 대표적인 중국의 민주 운동이라고 인정한다. 그들은 이광요와 미국식 민주를 비판하는 어떤 사람에게도 반대하고 공격한다. 다만 그것은 그들도 진정한 이상주의자가 아니라 개인의 정치적 전망에 맡기고, 정책이 동요하여 확실하지 않은 것은 대체로 모험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국방상에서는 국방부장관 페리를 대표로 하는 사람들은 충돌을 방지하고 감소하는 방어적인 국방을 주요 책략으로 하자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그들은 미국이 세계에서 지도적인 지위를 방기하지 않는 데 이 점이 고립주의파와 다른 것이다. 페리는 점차로 이전의 소련의 핵무기를 삭감하는데 매우 많은 일을 하였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그는 일본, 한국, 오스트레일리아와 동맹국 관계를 강화하고 ASEAN의 지역적인 회의에 전력으로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노력할 것을 주장하고, 중국과는 중국과 군사적인 방면의 전면 대화도 포함하는 전면적인 대화를 할 것을 주장한다. 페리는 미국의 지식인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

이전의 대통령 부시와 키신저를 대표로 하는 노인들의 실제파는 미국이 냉전 시대 후기 또는 신 국제 질서 시대에 마땅히 의식 형태의 투쟁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미국이 당연히 중국이 경제와 정치 대국을 이룬 것은 불가피한 사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서 미중의 3개 公報를 준수하고 중국과 전면적인 대화를 하고 무역과 인권을 연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노인들의 실제파의 주장은 비교적 진중하여 미국과 중국 국민의 이익에 부합한다.

#### 7. 미국식, 대만식의 급전 정치와 민주

199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Dole의원은 마지막 시간에 클린턴의 사전 계획을 빼내어 클린턴이 올

해 안에 黃建男과 자신의 막료 鄒杰士, Middleton 과 Girobmyer 등의 사람이 대만 인도네시아의 기부금을 접수하는 것을 통과시킨 것을 폭로하였다. 이러한 폭로는 미국 정계, 매체와 미국 국민을 놀라게 하였다. 킹리치 의장은 이미 클린턴에게 대통령 선거 후 적극적으로 일의 진상을 밝히도록 추구하고 싶다고 경고하였다.

미국식 민주적인 경선은 대량의 금전을 필요로 하며, 이미 사람들도 주지하는 바이다. 그러나 민주와 공화 양당은 모두 선거 경비 개혁 방안이 통과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강대한 금전 정치의 압력 하에서 [臺灣牌]와 중국 정책은 곧 희생양이 된다. <<華爾街月報>>와 <<世界日報>>의 보도에 따르면 황건남은 대만의 지도자로 클린턴의 대중국정책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중요 인사이며 대만도 황건남, 오걸사 등의 사람이 기부금을 거두는 대상이 되었다. 그리하여 미국식 금전 정치와 대만식의 금전 정치는 정치 이익 때문에 밀접하게 합작하였다. 이것은 완전히 이러한 [민주]정치의 허위와 가소로움을 반영한 것이다.

클린턴은 [臺灣牌]를 함으로써 대만 지도자와 대만 대자본가의 기부금은 충실하게 그의 선거 자금이 되었다. 이등위는 클린턴과 그의 막료들을 이용하여 미국의 대중국정책에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이등위 등의 사람이 대만에서의 지도적인 위치와 기득권을 보전하였다. 피해를 받은 사람은 중국 인민이며 대만 동포의 장구한 이익도 포함된다.

### 결론

몸은 중국인이며 몸은 흥기하는 아시아의 한사람으로 우리들은 나날이 낙관적이 되고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 미국과 일본은 모두 다시 냉전 시대로 되돌릴 수 없으며, 이것은 개인의 의지로 바꿀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도 미국의 모험 외교와 미국의 전진을 위한 후퇴 일본 군국주의를 선동할 가능성을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 우리들은 해협 양안이 모두 중국과 아시아 인민들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출발하고 군사 경비, 외교 경비를 줄여서, [새와 조개의 다툼으로 어부가 이익을 얻지]않게 할 것을 주장한다. 우리들이 공동으로 손을 맞잡고 21세기로 향하여 나아간다면, 그것은 아시아의 시대가 될 것이다!